

<11> 방사선사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대전직할시내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이은호 · 김춘식

1. 서 론

방사선사는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독자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고,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근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의식은 전문직수행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99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대전직할시내에 근무하고 있는 156명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한 후에 회수된 121명 분 중 분석가능한 115명(남자 : 97명 여자 :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PC⁺를 이용하였으며, 제 변수별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X²-Test를 실시 하였다.

3. 결 과

- 1) 성별 근무자세에서 남자는 『수동적이다』가 55.7%, 여자는 『능동적이다』가 38.9%로 가장 많았다($P<0.001$).
- 2) 병원규모별 업무량에서 의원,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방사선 전문의원이 각각 60.9%, 78.6%, 100%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종합병원은 58.9%로 『많다』고 응답하였다($P<0.05$).
- 3) 경력별 방사선사 선택이유에서 『면허증이 있어 안정된 직업으로 생각되어』가 전체응답자의 47.8%로 가장 많았고, 『친지권유』가 20%, 『아무 생각 없이』가 32.2%였다($P<0.05$).
- 4) 만족도별 직업에 대한 보람에서 『있다』가 60.9%, 『없다』가 39.1%였다($P<0.01$).
- 5) 근무자세별 자녀직업관에서 『만족한 마음으로 근무한다』가 『찬성』 32%, 『생계수단으로 근무한다』가 『반대』 67.9%였다($P<0.01$).
- 6) 병원규모별 보수는 전체응답자 115명 중 『적당하다』가 32.2%, 『부적당하다』가 67.8%였다($P<0.01$).